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최종 확정

온라인투표 · 주민참여예산위 심사 합산해 40개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발표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친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3개 분야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원·주민이 참여해 총 3만5658표를 투표했다. 학생분야에서는 용산초 '오감으로 세상을 만나다'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부모분야에서는 남원사매초 '토클아 프로젝트(토요일에 크는 아이들)' 등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직원 및 주민분야에서는 회현중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등 24개가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컨설팅과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학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K-에듀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사용자 교육 위한 강사 인력풀 운영... 28일까지 희망자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이 적용됨에 따라 시스템 초기 사용자 교육을 위한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습종아리 회원 중심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하반기부터 K-에듀파인 교육이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강사 인력풀 구

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학교회계 교육 92강의, 사립유치원회계 교육 182강의가 예정돼 있어 강사진 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모집인원은 주강사(6~8급) 40명 이상, 보조강사(7~9급) 50명 이상으로 오는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강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도교육청 예산과로, 보조강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28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모든 유치원·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이다. 기존 재정시스템 에듀파인과 행정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 /장은성기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3기 입학식이 전주대학교 리사이트홀에서 성황리 열렸다.

미래의 전북 책임지는 스타 기업 육성한다

전주대-벤처기업협회, 전북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 3기 입학식 개최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3기 입학식이 전주대학교 리사이트홀에서 성황리 열렸다. 전주대학교는 지난해 4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혁신선도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중소벤처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함께하기로 합의하고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발족했다. 이번 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 3기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의 최고위 경영자과정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대표 44명이 앞으로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 18시 전주대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명사 초청특강과 창조경영 교육, 디지털마케팅 교육 등의 강의와 체험, 그리고 (사)세계한인경제인협회와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개 기수를 통해 100여명의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장이 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 과정을 수료

했으며, 그동안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의 소통을 늘리고 눈높이를 맞추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의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스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축하사에서 "이번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벤처리더스아카데미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마음속의 야생지대를 품어라

전북대, 안도현 작가 초청 북 콘서트 25일 개최
신작 동화 '남방큰돌고래' 북 토크 · 공연 등 다채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박경수, 경영학과 교수)이 안도현 작가를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북 콘서트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전대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학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도현 작가는 시 너에게 묻는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언어' 등 대중에게 사랑받는 수많은 작품을 쓴 국내 최고 작가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안 작가의 시에 관한 강연과 함께 서울대 공원에서 제주바다로 여행 방사된 남방큰돌고래에 영감을 받아 지은 신작 동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북 토크를 진행한다. 이 시간에 안 작가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속의 야생지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도현 작가의 시를 편곡한 모던듀오 '이상한 계절'의



공연도 열리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저자의 사인 도사인 '남방큰돌고래'를 추천해 증정한다. 박경수 도서관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대 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이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대학교 도서관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지역민과 소통, 협력하는 독서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원광대, LED 가로등 설치로 캠퍼스 환경 개선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9월 개강과 함께 대운동장 및 수덕호 주변을 중심으로 교내 LED 조명 1차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야간 캠퍼스 밝기를 향상시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박맹수 총장과 시설지원과 직원들이 직접 교내 곳곳을 돌아 가로등이 필요한 장소와 개수를 파악해 진행했으며, 먼저 야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장소로 대운동장을 뽑아 교체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대운동장은 본부석 상단에 6개, 가장자리에 15개의 가로등을 교체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에 4개를 추가 설치해 야간운동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앙도서관과 학생지원관 앞 벤치, 수덕호 주변 가로등을 교체하고, 앞으로도 어두운 곳을 찾아 추가로 LED 가로등을 설치해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로등 교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태현(원광대 경영학부 4년) 학생

은 "야간에 자주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너무 어두워 많이 불편했었지만 이제는 많이 밝아진 가로등 덕분에 운동하는 사람도 늘어났 것 같다"고 전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운원 관리처장은 "이번에 설치된 총 25개의 LED 가로등은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밝기를 내면서 연간 4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며, "그동안 우리 대학 교정이 야간에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설치한 LED 가로등인 만큼 대학구성원 모두가 아끼고 관리를 잘해 고장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여자화장실 전체 216곳에 교내 보안업체에서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 학내 안전을 강화했으며, 단과대학 내·외부 공사, 도로 보수, 흡연부스 및 벤치, 파라솔 신설 등 쾌적한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 환경개선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익산=정민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